

내달부터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도교육청, 내년까지 초4~고3 학생들에... 6년간 하자보수 비용 포함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 보급된다.

먼저, 올해 885억9,0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에게는 웨일북 1만8,200여 대를, 또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노트북 4만8,800여 대 등 모두 6만 7,000여 대를 보급한다.

이후 6년 동안의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됐다. 전담 콜센터 운영, 기기 A/S 기기 파손 및 분실 시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체계가 운영된다. 이는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탓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1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100% 보급된 부산과 경남은 물론이고 충북(90%), 경북(78%), 대전(74%), 강원(70.4%) 등 대부분 지역에서 50% 이상 보급됐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도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6만7,000여 대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도내 보급률은 57.5%로 오르게 된다.

이어 내년에 초4~고3까지 모든 학

생에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이 활발해지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공개입찰 계약을 의뢰한 전북교육청은 최근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은 열악한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계획한 대로 내년까지 스마트기기를 차질없이 보급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7년 만에 우승한 군산상일고등학교 선수들을 전북교육청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군산상일고 야구부, 전북의 자랑”

대통령배 고교야구 37년만에 우승 서거석 교육감, 선수들 초청 격려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7년 만에 우승한 군산상일고등학교 선수들을 전북교육청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민성 선수를 포함한 야구부 선수들과 이훈찬 야구부장, 석수철 감독, 임영근 교장, 나형은 총동문회장, 소재준 전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우수투수상을 받은 정민성 투수 등을 맞이하며 “1986년 이후 37년 만에 우승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자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우승을 축하했다.

특히 군산상일고의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등학교가 1986년 우승한 지 37년 만에 군산상일고는 이 대회 결승전 9회 말 공격에서 끝내기 적시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군산상일고는 군산상고가 올해 상업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서 교육감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의 건재함을 전국에 알린 여러분은 군산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이라며 “이에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전북 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논의

도교육청, 전국 포럼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2023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전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규모 유치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1개의 중심유치원과 2개의 협력유치원이 놀이를 중심으로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4개의 중심유치원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의 권순형 연구위원이 ‘하령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 학교 지원체계 구축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또 국립공주대학교의 이성희 유아교육과 교수가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어 전북·경남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정은성 기자



10개 국가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협약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위해 발로 댄다 주한 외국대사관들과 우호협력 체계 강화

글로벌대학위원회 구성

호주·페루·칠레 등 8개 대사관과 협력 약속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 30’ 사업(이하 글로벌대학 사업)을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들과의 우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본지정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와 김홍국(우)하림 회장 윤석진 KIST 원장 주한 모로코대사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대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체가 참여하는 ‘글로벌대학위원회’와, 해외 우수 대학 총장 및 여러 국가 대사관이 참여하는 ‘글로벌대학위원회’를 구성, 두터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오봉 총장은 최근 호주, 태국, 페루, 칠레, 과테말라, 이스라엘, 카타르, 모로코 등 주한 외국 대사관들을 찾아 글로벌대학 사업 자문을 위한 ‘글로벌대학위원회’ 참여를 요청하고, 폭넓은 상호교류를 약속했다.

양 총장은 호주대사관을 방문해 전북대와 호주 대학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 교류 분야와 관련, ‘더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한 여름과 겨울 단기 교류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과테말라대사관과는 업무 협약을 통해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대학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중 과테말라대사가 전북대를 방문해 마야문명에 대한 특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칠레대사관은 북카톨릭대학교(Universidad Catolica del Norte)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배터리 분야에서 전북대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실행을 약속했다. 그 시작으로 10월 중 칠레대사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팜 관련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전북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주한 페루대사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북대의 글로벌자문위원회 참여를 수락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שראל대사관은 방산, 농업 분야 최첨단 기술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대와 이스라엘의 우수 대학들 간 실질적인 교류 협조를 약속했다. 11월 중 관련 세미나를 전북대에서 먼저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이스라엘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모로코대사관과는 과학 분야에서 양국 대학 간 복수전공과 교환학생, 장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공동 연구와 학회·세미나 기획 등에 협력키로 했다.

카타르대사관과는 전북대와 카타르의 국립대학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식량안보,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 뜻을 같이 하고 점진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을 위해 이번엔 여러 국가 대사관에서 뜻을 같이하기로 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대학위원회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대학 사업의 본 선정을 위한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전북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이שראל대사관은 방산, 농업 분야 최첨단 기술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대와 이스라엘의 우수 대학들 간 실질적인 교류 협조를 약속했다. 11월 중 관련 세미나를 전북대에서 먼저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이스라엘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모로코대사관과는 과학 분야에서 양국 대학 간 복수전공과 교환학생, 장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공동 연구와 학회·세미나 기획 등에 협력키로 했다.

카타르대사관과는 전북대와 카타르의 국립대학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식량안보,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 뜻을 같이 하고 점진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을 위해 이번엔 여러 국가 대사관에서 뜻을 같이하기로 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대학위원회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대학 사업의 본 선정을 위한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전북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6일 청조나래관 회의실에서 도내 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에듀페이’ 지급

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16일 청조나래관 회의실에서 도내 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학습지원비 신청에서부터 선불카드 교부까지 학습지원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센터는 신청서를 받아 선불카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도내 주수지를 둔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16~18세)은 9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

는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군산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에듀페이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년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지원금, 고등학교 2학년에 학습지원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진로지원비가 각각 지급된다.

내년에는 도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하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때”라면서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전북은라인학교

신설·운영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 치명자산상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96개 일반계고 교강과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은라인학교 신설·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북은라인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김제고등학교 실습동에 총 25실 규모로 들어선다. 1인 미디어실, 온·오프라인 강의실, 융합수업실 등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특정 교과 교원 미배치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비롯해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과목이 개설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 개방형 과 단위 학교 주문형’ 등 학생과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개방형은 과목 수요 기초 조사 및 과목 수요 분석을 통해 온라인학교 개설 예정 과목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강 신청을 받는 방식이고, 단위 학교 주문형은 단위 학교에서 전북은라인학교에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전북은라인학교에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수목관리비 지원... 학교에 최대 500만원

공립 유치중고 등 690곳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현장의 수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목관리비 지원 대상은 공립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폐교 등 약 690개 학교다.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의 관리비를 받게 된다.

최신사 재무과장은 “학교 수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